



남북이산가족 상봉의 의미와 과제



박 기 룬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

남 북대회는 지난 1971년 8월 12일 당시 대한 적십자사 최두선 총재가 북한 적십자회에 1천만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해소해 주기 위한 인도적 회담을 제의함에 따라 이루어진 남북적십자 회담으로 시작되었다.

수십 차례의 사전 준비 접촉 및 예비회담을 통해 남과 북은 마침내 1972년 적십자 본회담에서 논의할 의제 5개항에 어렵게 합의하였다. 의제 5개항은 우선 이산가족들간에 생사소재를 확인하고, 편지를 교환하며, 서로 상봉하고, 궁극적으로 재결합을 이루도록 되어 있으나, 남과 북은 지난 1985년 제8차 남북 적십자 본회담의 합의에 따라 실현된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을 제외하고는 100여회의 회담을 하면서도 의제 실천방법을 놓고 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함으로써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1985년 5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8차 남북적십자 회담의 합의에 따라 그해 9월 분단 30년 만에 이루어진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교환은 당시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일이었다. 비록 그 수는 남북 각각 50명에 불과하였으나 이산가족들에게 이제는 고향에 갈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적십자사 입장에서도 앞으로는 이산가족 문제가 조금씩 풀려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성급한 전망과 기대를 하기에 충분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15년여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북측의 무성의한 태도로 인하여 추가 방문단 교환 문제를 비롯한 남북간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해소시키는데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함으로써 수많은 이산가족들에게 커다란 절망감을 안겨 주었다.

이처럼 죽기 전에 한번만이라도 가족 상봉을 열망하는 연로한 이산가족들이 세상을 등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속에서, 이번 6.15 남북공동 선언은 그야말로 이산가족들에게 거의 꺼져가는 희망의 불씨를 되살려 주는 역사에 길이 남을 쾌거라 아니할 수 없다. 6.15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해 개최된 남북적십자회담의 합의에 따라 비록 제한적인 인원이기는 하지만 분단

55년이 다 되도록 단 한차례 밖에 없었던 남북이산가족들간의 만남이 바로 지난 8월 15일 다시 이루어진 것이다. 늦은 감은 있지만 북측이 우리측의 진의를 받아들여 천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호응을 하였다는 것으로 조금이나마 위로를 삼고자 한다.

남북 이산가족들간의 만남은 단순히 헤어진 가족 친지들간의 상봉만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대립하고 반목하여 왔던 남과 북이 화해의 길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는 것과 이를 계기로 다방면에 걸친 교류와 협력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인도적인 사안이면서도 그동안 북측에서 가장 논의하기를 회피하고 꺼려왔던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물꼬가 트임으로써, 남북 관계가 앞으로 미래 지향적 차원에서 동반자 관계로 발전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번 8월 15일의 방문단 교환은 남북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그 시작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하며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까지에는 앞으로 남과 북이 인내를 가지고 해결해야 할 적지 않은 사안들이 있을 것이다. 남북 간 사회, 문화, 학술, 스포츠 등의 교류 문제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나, 가족들과의 만남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수 많은 이산가족들의 교류문제는 이산가족들의 기대와는 달리 다소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7백6십7만여 명의 이산가족 중에서도 1세대로 분류되는 1백23만여 명에 달하는 이들의 염원을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떻게 실현시키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냉정히 생각하여야 하는 것은 남북 이산가족 문제를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다는 절박한 환경에 얽매어 일시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성급한 정책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넓은 안목을 가지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이를 수 있는 지름길을 찾아내는 지

혜가 필요한 때이다. 따라서 예견될 수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깊이 연구 검토하여 사전에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남과 북이 서로 마련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북측과의 금강산회담에서 지속적으로 이산가족들의 상봉을 추진하기 위하여 남북 이산가족들을 위한 항구적인 면회소 설치를 관철시킨바 있다. 따라서 9월초 비전향 장기수의 북송이 마무리되면 즉시 남북적십자 회담을 열어 이 문제를 협의 해결해 나갈 것이다.

이산가족들간의 상호 방문도 중요하지만 그 인원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더욱 중요하다고 확신하는 것은 보다 많은 이산가족들이 일정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문제이다. 이산가족 면회소가 설치 운영되면 이 문제에 대한 해결과 아울러 이산가족들간의 생사소재 확인 및 편지 교환 문제도 자동적으로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한적십자사는 이산가족들이 가족친척들의 생사 소재를 확인하고, 편지를 교환하며,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마련하는데 있어서 모든 인도적 노력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대한적십자사는 또한 지난 적십자회담에서 공식적으로 다루지 못했던 북한에 생존하고 있는 국군 포로들과 6.25 전쟁 후 억울하게 납북된 어부 등을 포함한 무고한 사람들의 문제들도 넓은 범주의 이산가족 안에 포함시켜 인도적인 견지에서 그들과 고통을 함께 하고 또한 고통을 함께 치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지금까지 대한 적십자사가 맡은 바 인도적인 임무를 차질 없이 수행 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전폭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정부와 국민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한적십자사는 앞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인도적 사업인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하여 모든 열과 성의를 다할 것임을 굳게 다짐하는 바이다. 